

# “시민 감동 시키는 음악 들려 드릴게요”

## 젊음! 그 열정과 꿈

### 광주시향 중추역할 악장 등 맡은 젊은 피 9월 6일 ‘프라하의 추억’ 공연 데뷔 무대

〈10〉 광주시향 신입단원 이종만·박신영·이후성 씨

젊은 패기로 무장한 30대 상임지휘자 크리스티안 루트비히가 이끄는 광주시립교향악단에 신선한 새 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대대적인 오디션 거쳐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의 젊은 피 8명이 한꺼번에 투입된 덕이다. 광주시향은 숙원이었던 하프 연주자를 비롯, 타악·바순·현악기 파트 등 젊은 연주자들을 영입했고 체계적인 홍보를 담당할 직원도 채용,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23일 교향악단 연습실에서 이제 막 출근한지 3일째인 악장 이종만(30), 제 1바이올린 수석 박신영(29), 첼로 차석 이후성(29)씨를 만났다. 세사람이 맡은 파트는 오케스트라의 중추 역할을 자리로, 지금까지

지는 40~50대 중견 단원들이 맡아왔다. 그래서 ‘젊은 피’들의 여가 무겁다. 그들에겐 새로운 조직 생활에 대한 설렘과 함께 약간의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종만씨는 청주 출신으로 15살 때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 런던 퍼셀 음악학교와 독일 로스톡 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하고 독일 하겐 시립극장 오케스트라 악장을 역임했다. 조선대 출신인 후성씨는 하노버 국립음대를 거쳐 현재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최고 연주자 과정에 재학중인 재원. 순수 국내파인 신영씨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예비학교를 거쳐 고2때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조기입학했고, 현재 같은 학교 최고연주자 과정에 재학중이다.

“독일 생활을 접고 들어와야 했던 터라 원서를 쓰기 전에는 고민이 조금 있었죠. 광주시향에 대한 다양한 소식을 접하면서 여기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연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청중들에게 사랑받는 오케스트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0여명의 단원을 이끌 ‘악장’이라는 직함은 힘든 자리다. 특히 종만씨의 나이가 어리다 보니 그만큼 신중을 기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의 연주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주력은 향상에 최선을 다해야겠죠. 더불어 단원들에게는 시향이 하나의 ‘직장’이라는 사실도 외면할 수 없죠. 음악적인 리더와 함께 단원들과의

관계도 잘 만들어가도록 해야죠. 아직 며칠 접해보지는 않았지만 저보다 연배도 높고 연륜도 있으신 분들이라 받아들여시는 게 열려 있어 큰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웃음)”

만 3살 때 바이올린을 시작한 종만씨는 “독일에서 악장은 오직 연주만 책임지는 역할인데 한국은 음악 외적인 부분도 신경써야 할 게 많은 게 좀 다르다”고 말했다.

후성씨는 자신에게 첼로를 가르쳤던 시향의 박문경 첼로 수석과 함께 근무하게 됐다. 전일 첼로 차석 역시 후성씨의 스승이었다.

“음악을 시작하면서 늘 마음에 품고 있던 꿈이 광주시향에서 연주하는 거였어요. 꿈을 이뤄서 행복합니다. 광주가 고향이다 보니 단원중



최근 광주시립교향악단에 입단한 이종만(악장), 박신영(1바이올린 수석), 이후성(첼로 차석)씨.〈사진 왼쪽부터〉/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아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떨리기도 하고 그래요. 막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니까요.(웃음)”

봉선중 3학년때 첼로를 시작했던 후성씨는 “남들보다 늦었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하려고 항상 노력했죠. ‘시향에서도 열심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직 학기가 남은 신영씨는 “지금

말게 된 자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책임감이 많이 따르는 것 같아 긴장도 많이 된다”며 “개인 연습도 열심히 하고, 무엇보다 오케스트라에 대해서도 공부를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시민들에게 좋은 연주를 들려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청중들이 음악을 즐기고 그 자체로 행복해 하는 것,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

해요. 시향의 음악을 듣고 더불어 공부하면서 청중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이종만)

시민들에게 가장 들려주고 싶은 작곡가로 모두 브람스를 꼽은 세사람을 비롯, 신입 단원들의 데뷔 무대는 오는 9월 6일 광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프라하의 추억’ 공연이다. <끝>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문예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 해설이 있는 음악회

광주문예회관(관장 정창재)이 광주일보사와 함께 시민 여러분을 ‘해설이 있는 음악회’에 초대합니다.

광주문예회관은 개관 20주년을 맞아 광주일보사와 함께 지난 7월 6일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의 정기연주회를 시작으로 매월 한차례 명품해설이 곁들여진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12월까지 이어지는 이번 음악회는 클래식, 오페라, 발레, 국악, 합창 등 다양한 장르의 전문가들이 해설가로 나서 음악에 대한 이해를 높여줄 것입니다.

광주문예회관 개관 20주년 특별기획으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문의 : 062-613-8350, 062-220-0651



**2011년 8월 31일**  
**이용숙과 함께 하는 오페라, 그 행복한 중독**  
오후 3시 |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이용숙 | 음악평론가, 독일 프랑크푸르트대 음악학과, 평화방송 ‘음악공감’ 등 출연



**2011년 9월 9일~10일**  
**윤진철과 함께 하는 한기위 국악한미당**  
오후 7시 30분 | 광주 광천동 유스퀘어 야외공연장  
윤진철 | 광주시립국악단 예술감독, 광주MBC ‘우리기락 우리문화’ 진행, 한국방송 대상 국악인상



**2011년 10월 27일**  
**장일범과 함께 하는 광주시향 수시연주회**  
오후 8시 |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장일범 | 음악평론가, KBS클래식 FM ‘장일범의 가정음악’ 진행,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 음악원 수석



**2011년 11월 10일**  
**김유미와 함께 만나는 ‘성웅 이순신’**  
오후 7시 30분 |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김유미 | 광주시립무용단장, 한국발레협회 이사, 창작발레 ‘명성왕후’ 등 연출



**2011년 12월 10일**  
**이어진과 함께 하는 합창공연 ‘아듀! 2011년’**  
오후 7시 30분 |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이어진 |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장 겸 지휘자, 전 광주 평화방송 ‘평화음악실’ PD



## “환경 생각했던 그의 예술 만끽하기를...”

### 요셉 보이스 최대 컬렉터 레인하르트 슐레겔



“요셉 보이스가 생전 환경을 생각하며 펼쳐던 예술의 진수를 광주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 보이스(Joseph Beuys, 1921~1986년) 작품의 세계 최대 소장자로 알려진 독일의 레인하르트 슐레겔(67)씨가 ‘모든 사람은 예술가다: 요셉 보이스’(25일~11월 6일·광주시립미술관 1~2실) 전 준비를 위해 광주를 찾았다.

그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라는 도시는 그동안 전혀 몰랐는데, 직접 와보니 요셉 보이스의 작품을 더욱 빛내 줄 장소인 것 같아 전시를 준비하면서 행복했다”고 밝혔다.

독일의 국보급 작가인 요셉 보이스는 생전 부유층의 작품 독점을 비판하며, 누구나 작품을 소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멀티플’을 만들어냈다. 슐레겔씨는 요셉 보이스가 남긴 550여점의 멀티플 중 400여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번 전시에는 360여점을 선보인다.

그는 “1975년 주변의 권유에 따라 요셉 보이스의 작품을 사들이기 시작했다”면서 “백남준과도 인연이 깊은 요셉 보이스의 작품을 더욱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요셉 보이스는 전형적인 미술 도구가 아니라 일상의 사물을 소재로 작업을 했기에, 이번엔 소

개되는 작품의 재료가 신신할 것”이라며 “생전 요셉 보이스가 퍼포먼스를 하며 남긴 예술적 흔적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립미술관은 ‘요셉 보이스’전과 함께 마네, 피카소, 샤갈, 미로, 달리, 앤디워홀, 로이 리히텐슈타인 등 현대미술의 슈퍼스타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 모은 ‘인상과 이후 서양미술의 거장’전을 열고 있다. 전시 입장료는 4000~8000원. 문의 062-613-714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사진 콜라주와 회화를 동시에

### 연우봉 초대전, 30일~9월 6일 롯데갤러리



롯데갤러리는 오는 30일~9월 6일 서양화가 연우봉의 초대전을 연다. 사진 콜라주와 회화 작업을 통해 웅장한 화면을 구축하고 있는 그는 평범한 일상을 색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하나의 그림을 여러 개의 화면으로 분할한 뒤 거대한 전체 이미지를 완성한 신작을 발표한다. 이들 작품은 각각의 개별 이미지가 서로 다르지만 통일된 하나의 형상을 위해 짜맞춰지는 독특한 과정을 보여준다.

또 수집한 서로 다른 사진을 모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회화의 만찬,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등 거대한 이미지로 완성하는데, 서로 다른 시간의 기억이 중첩되면서 묘한 울림을 준다.

홍익대 서양화과를 나온 뒤 대한민국의 미술대전 특선을 받았고, 서울 등지에서 20여 차례 개인전과 수 많은 단체전에 참여했다. 문의 062-221-1808.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마음의 촉각”

## 아시아 예술극장 올릴 작품 미리 본다

### 29일~9월 4일 ‘창작 레지던시 광주’ 진행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오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2011 아시아예술극장 창작 레지던시 광주’를 진행한다.

이 행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공연장인 아시아예술극장의 정식 개관에 앞서 수준 높은 창작 공연을 개발하고자 지난해와 올해 진행된 두 차례의 국제공모에서 선정된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다.

제1회 당선작인 미국 안무가이자 미디어 연출가인 딘 모스와 한국 조각가 천성명의 협력 작품인 ‘이름 없는 숲(Namless forest)’의 전시, 한국인의 공연창작집단 ‘뫼다’와 호주의 인

형극단체 ‘스너프 퍼펫’의 협력 작품인 ‘송노인 풍당면’ 공연 등이 진행된다.

인도네시아 무기댄스(Mugidance) 단체의 ‘인도네시아·태국 예술가 공동작품’과 홍성민의 공연예술 프로젝트 ‘유형학적 아카이브 프로젝트-전통/현대’ 등 제2회 당선작의 창작 과정을 공개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예술가와의 대화, 오픈 워크숍 등 작품 개발 과정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문의 02-764-654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